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교육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교육목표 기독교적 지도자 / 창의적 전문인 / 자율적 봉사자

NO.388 2022. 3. 23 Wed

발행인 김상식 주간 임태균 간사 방미향 편집장 정우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243 http://www.sungkyul.edu



2 보도
제7회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4 대학
전환되는 방역지침,
신학기 대학에
어떤 바람 부나?



7 사회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부활,
과연 필요할까?



13 교양
고개를 숙인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

개강사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성결대학교 총장 김상식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 COVID-19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 행사와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교수님을 직접 만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차를 마시는 낭만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텅 빈 캠퍼스와 강의실

을 보면서 총장으로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히 이번 학기부터는 대면으로 강의와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 학교 곳곳에서 졸업 가운을 입고 환한 얼굴로 졸업을 기념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진 21일부터 일주일 내내 학교 곳곳에 모인 새내기들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학생들로 채워진 학교 공간에 생기가 돌았고 이제야 학교가 학교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대면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한 2, 3학년 학생들이 안쓰럽고 대면 강의 환경이 낯설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육도 장점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반복청취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향적인 강의만으로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

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지성과 협업의 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직접 만나 서로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대면 강의와 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번 학기에는 대면 교육환경으로의 복귀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대학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혼란에 휘둘려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문명의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명확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결대학교 학생 모두가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장으로서 성결대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향상시켜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만족하는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교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학부와 기반특화 사업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각 학부과의 교육과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고 학부와 및 단과대를 중심으로 트랙을 개발함으로써 창의융합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날씨가 차갑고 코로나 팬데믹도 종식되지 않아 함께 모여 누리던 예전의 그 평안하고 화려한 봄날이 다시 올까 의심이 듭니다.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도 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학교 정문 멀리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심과 두려움 없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2022년 1학기를 맞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보기

익숙함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
<6면에 계속>



새내기 대학생활백서
<8면에 계속>



어서 와~ 캠퍼스는 처음이지?
<11면에 계속>



학우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유롭게 뜻을 펼쳐 주세요!
성결대 학보사는
학우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instagram | sku_press
e-mail | jelly1110@sungkyul.ac.kr
H.P | 010-8936-8159
office | 학생회관 223호

제7회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본교 ▲김가현(국문19) ▲윤우진(국문20) ▲이시현(국문20) ▲유경서(사북19) 학생이 '승전보 올려라'라는 팀명으로 제7회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상을 한 작품은 '오도인, 인간이 되고 싶었던 이방인'이라는 주제의 영화 기획안인데, 모두에게 익숙한 단군신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내용이다. 인간이 되어 신과 혼인한 꿈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이 되지 못하고 반인반수가 되어 도망친 호랑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해당 작품은 '현대 사회 속 소외받는 이들은 소수가 아닌 우리 모두임을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오도인 : 인간이 되고 싶었던 이방인>'. 여러 분들의 주변에도 '오도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숨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



용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스토리 테마파크 홈페이지(<http://story.ugyo.net/front/contest/ctMai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통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웹툰·만화·출판·공연·게임·전시·관광 등 문화콘텐츠로서 사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기획안을 공모한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사진/참조 -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 테마파크

규암성결교회 장윤석 목사, 본교 신학대학원에 장학금 오백만 원 기부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는 지난 3월 10일 (목) 규암성결교회 장윤석 목사로부터 장학금 오백만 원을 전달받았다. 교회 창립 110년을 맞이하는 규암성결교회(담임목사 장윤석/총남지방회/부여 소재)는 예성 교단의 미래 목회자 양성에 일조하고자 3월 10일 총장실을 방문하여 <신학대학원 장학금>을 기부했다.

장윤석牧사는 “여전한 코로나 상황에서 넉넉하지는 않으나, 건강한 미래 목회자 양성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는 것이 예성1호 교회로서 의미 있는 일이자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통해 예성 교단의 건강한 미래 목회자 양성에 선하게 사용됨은, 교회 창립 110주년(2022년 7월 26일)을 맞아 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규암성결교회 온 성도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신학대학원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이번 장학금 기부 취지를 밝혔다. 이에 김상식 총장은 “소중한 뜻에 따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있었던 장학금 전달식에는 장윤석 목사와 김상식 총장, 김계동 지역사회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그 외 발전기금 기부 소식

복된 교회(유우열 목사) : 지난 12월 31일 신학대학원 장학금 2천만 원 기부

※ 발전기금 및 CMS를 통해 기부해 주신 성결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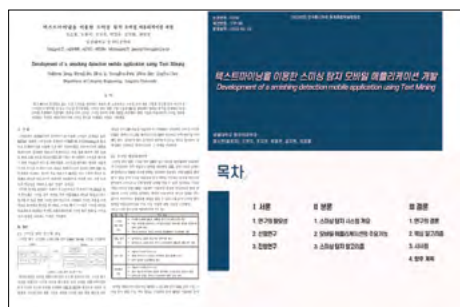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사진/참조 - 본교 홈페이지



본교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2팀 한국통신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 발표

본교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2팀이 지난 2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2022 한국통신학회 동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식물공장 내 식물 성장 예측모델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종표(졸업생), 신원섭, 강정아, 권유정, 정길연(이상 4학년, 지도교수: 최정열) 팀은 식물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트윈을 적용한 식물공장 내 식물 성장 예측 모델을 연구했다. 이를 위해 현실 및 디지털 트윈 식물공장 테스트베드를 제작하였으며 4가지의 환경에서 식물 성장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식물 성장 데이터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했으며, 구축한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값과 예측값



을 비교하고 정확성을 확인했다. 본 논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진행한 2021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한편,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스미싱 탐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정소현, 도현지, 박영은, 김지원(이상 4



학년), 조지은(졸업생, 지도교수: 최정열) 팀은 스미싱 단어 랭킹 구현과 수신한 문자 메시지가 스미싱인지 탐지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연구했다. 스미싱 단어 랭킹 구현은 Okt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고 특정단어를 추출하여 가장 많이 분포된 단어 순으로 스미싱 단어에 대한 랭킹을 제공하는 기

술이다. 이 기술은 사용자에게 스미싱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스미싱 탐지를 수행하는 서버로 구현한다. 본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주최하는 2021 CONNECT 창의연구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논문 발표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과 수업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전공역량의 제고는 물론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하고 있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사진/참조 - 본교 홈페이지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위촉연구원 합격



본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오승민, 신슬비 학생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위촉연구원에 합격하여 3월 2일부로 학업과 병행하며 연구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했다.

KETI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42조에 의해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전자기술 개발을 통해 전자부품의 국산화 및 신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이다.

위촉연구원으로 합격한 두 학생은 평소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응용 분야

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온 경험을 인정받아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사진/참조 - 본교 홈페이지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윤민석, 2021년 공개SW 개발자 대회 학생 부문 대상 수상

본교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윤민석(3학년, 휴학)이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난해 개최한 '2021년 공개SW 개발자 대회'에 참가해 학생 부문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21년 공개SW 개발자 대회는 공개SW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 GitHub 등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의 강의를 제공하며 프로젝트 기획, 개발, 협업 등의 개발 경험과 기능테스트, 라이선스 검증을 통해 개발 공개SW 프로세스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대회이다. 윤민석 씨는 '파이어폭스 프로톤(Firefox Proton) 디자인 UI/UX 개선 프로젝트'로 참가하였다.

파이어폭스 개발자 버전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큰 UI 변화가 생겼는데 커뮤니티에서 반발이 심했고 이들을 해결하는 패치들이 일부 존재했지만 "브라우저는 매우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니 내가 직접 이상적인 형태를 구현해 보자"고 생각했다며 프로젝트 추진 이유를 밝혔다. 결국 윤민석 씨는 적당하게 조정된 메뉴 간격, 익숙한 탭 모양과 복잡한 탭 상태의 일관적 표현, 각종 아이콘, 각 OS에 어울리는 디자인, 다크 모드 및 테마 컬러의 적용 범위 강화, 명확하며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접근성 개선 등을 이뤄냈다. 윤민석씨는 "이미 구현한 기능 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UI/UX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나은 커스텀 가능성과 각종 기능을 만들어 더 나은 브라우징 환경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https://zdnet.co.kr/view/?no=202201131023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참조 - 본교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외협력 한국특허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대학(원)생 나노기술 공모전

나노영챌린지

Nano Young Challenge 2022

접수기간 2022.02.28(월) ~ 04.03(일) 자정까지

참가 자격

국내 재학(휴학) 중인 대학(원)생 개인 또는 팀

※ 참가 제한사항

- ① 동일(유사) 아이디어로 타 공모전에 수상 경험이 있는 자
- ② 신청서 등의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자
- ③ 학위 논문 주제 또는 소속 연구실의 연구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이디어
- ④ 타인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도용 및 분쟁의 우려가 있는 아이디어

지원 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전자우편(kontrs@kontrs.or.kr) 제출

공모 분야: 나노기술 전 분야

• 공모 범위

- ① 아이디어 창출 능력(새로운 나노기술 만들기)
- ② 문제 해결 능력(잘못됐던 나노기술 문제 풀기)
- ③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나노기술로 좋은 세상 만들기)

• 세부 공모 분야 : 나노정보전자, 나노바이오, 나노소재, 나노매뉴팩처링, 나노에너지·환경

제출 서류

- ①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 ②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③ 재학(휴학)증명서(발급일자 2022.03.01.(화) 이후로만 인정)

시상 규모 및 특징

• 수상자(팀)

구분	수상자(팀)	상금	비고
최우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명(팀)	300만원
우수상	나노기술연구협회회장상	1명(팀)	100만원
우수상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	1명(팀)	100만원
우수상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회장상	1명(팀)	100만원
장려상	나노기술연구협회회장상	6명(팀)	- 상징 우편 발송

• 참가자(팀) 전원 기프티콘 제공 (설문조사 참여시 1인당 1회)

• 2차 심사 합격자(팀) : 활동지원금 지급, 나노코리아 2022 무료 등록 및 포스터 전시 지원

※ 단, 무료 등록은 대학생에 한해 제공

※ 나노코리아 2022 : 2022.07.06.(수) ~ 07.08.(금), 경기도 고양시 KINTEX 행사장

• 최우수상/우수상(팀) : 아이디어 발표 영상 촬영 및 제작

추진 일정

참가 접수	1차 심사(서류)	2차 심사(발표)	아이디어 검증
'22.02.28(월) ~ 04.03(일)	'22.04.18(월) ~ 04.22(금)	'22.05.09(월) ~ 05.13(금) 중	'22.5월 ~ 8월

•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 • 서류 심사 진행
→ 1차 합격자 발표 → • 발표 심사 진행
→ 2차 합격자 발표 → • 시제품 제작 (약 4개월간)

포스터 전시	3차 심사	발표 영상 제작	시상식
'22.07.06(수) ~ 07.08(금)	'22.09.19(월) ~ 09.23(금)	'22.10.04(화) ~ 10.28(금)	'22.11.24(목) (예정)

• 나노코리아2022 포스터 제작 전시 → • 아이디어 검증 및 시제품 심사 진행
→ 최종합격자 발표 → • 최우수상/우수상(4팀) 발표 영상 제작 → • 수상자(팀) 시상 (최우수상/우수상)
• 시제품 전시 및 최우수상 발표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최우수상/우수상 시상 및 시제품 전시, 발표는 '2022 나노융합성과전'에서 진행

문의처

• 나노기술연구협회(www.kontrs.or.kr) 교육홍보팀

- TEL : 070-4866-5355 / FAX : 02-2057-8509 / E-Mail : kontrs@kontrs.or.kr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후원 한국과학창의재단 KION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본교 행정학과 남기범 교수,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본교 행정학과 남기범 교수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남기범 교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21년에는 제2소위 위원장으로서 국토교통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개최한 2021년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심사위원장, 국토교통부 혁신관련 현안 간담회 패널 등으로 활동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등에 의거하여 위원장 포함 23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설립된 위원회다.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을 반영한 1년 단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평가함으로써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참조 - 본교 홈페이지



전환되는 방역지침, 신학기 대학에 어떤 바람 부나?

익숙해질 즈음 바뀌던 방역 지침. 전면 대면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방역 지침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신학기, 대학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 이번 대학면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방역 지침을 알아보자.

새로운 지침, 드디어 대면?

교육부에서 지난 3월 4일 배포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지침은 22학년도 신학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 및 전파력 등을 고려, 학교 내 감염요인 유입 차단 및 신속한 대처요령 등을 보완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수업 및 수업 외의 ▲행사 ▲자치활동 ▲운동부 훈련 등의 각종 활동을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등교 전 임상증상을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 지침으로 둔다. 또한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방향이 새로이 제시됐다. 이는 학생 심리지원을 포함해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 교내 직원과 환경 등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 즉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대응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을 구성해 감염예방 활동 수행 및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각 대학에서 운영하던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식이라 새롭게 바뀐 지침을 따라가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은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총장 또는 부총장 등) ▲실무담당자 ▲학생(반드시 포함) 등으로 구성돼야 하고,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방역관리, 22년 1학기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등 일상 회복 전환에 대한 교내 구성원 의견 수립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 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급증 시 시행할 비상 대응계획인 업무 연속성 계획을 사전에 수립 및 교내에 공유해야 한다.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 ^②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접촉자 분류 시 및 격리 해제 전 PCR검사(총 2회)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 ^③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수동감시(10일)	동거인 검사 3일 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가능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 ^④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	등교 가능

※ 격리대상 접촉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 대상 접촉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별도 격리 통보

※ (확진자) 7일의 격리기간 후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표 - 1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 기간 및 등교 기준〉

상황에 맞춰 진화한 대학들

위와 같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22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입학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각 대학은 새내기들의 원활한 강의 참여를 돕기 위해 대면 또는 비대면 등 수업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자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숭실대 ▲숙명여대 등은 ▲입학식 ▲신입생 환영회 ▲오리엔테이션(OT) 등을 온라인으로 선보였다. 22학번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열린 입학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대학 관계자 및 학생 대표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학교 홈페이지,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중계하거나 사전에 제작한 입학 축하 영상 등을 공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동국대는 온라인 입학식을 선보이면서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한 소통 시간을 가졌고, 단과대학별 OT에서는 학사 제도·장학·국제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덕성여대는 신입생 등에게 온라인 입학식 개최 전 참여 링크를 공지했고, 상명대 입학 행사에서는 동문 축하 메시지 등이 전달되었다. 숭실대는 OT 동영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다이어리 등 환영 키트를 신입생들에게 배송한 성신여대는 ▲캠퍼스 투어 ▲학교생활 정보 안내 ▲축하 행사 등 온라인 OT를 진행했다. 국민대는 총장-신입생 간 소통 시간을 가지는 보드게임을 선보였고 광운대, 동덕여대, 서울과기대 등도 온라인 입학식을 가졌다. 경희대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KHU:Gather'를 구축해 별도 입학 행사 없이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콘텐츠, 특강, 캠퍼스투어 등을 제공하고 나섰다. 숙명여대는 신입생들이 참여한 이미지 파일을 대체불가 토큰(NFT·Non-Fungible Token) 디지털 아트 작품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A대학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입학 행사를 온라인으로 중계하

거나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 학기 수업은 대면-비대면 혼용 체제로 운영되는 모습이다. 졸업식에서 NFT 상장을 선보였던 성균관대는 올해 1학기 50명 미만 수업은 대면으로, 50명 이상 강좌는 순환 출석제 또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려대는 수강인원 100명 이상 강의를 비대면 또는 병행(대면-비대면 동시) 수업으로 실시, 삼육대는 개강 첫주의 전체 과목을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하고 2주차부터는 수강인원 등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중앙대는 1학기 대면 수업 안전 관리 지침을 공지했고, 한성대는 대면 수업 승인 과목 및 성적 평가 등을 안내했다. 한국외국어대는 40명 이하 강의를 등교수업으로, 40명 초과 강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한국외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

B대학의 한 관계자는 “수강인원, 과목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대면, 비대면 수업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방역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대비하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도 상황에 맞게 유연함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국민대, 경희대, 동국대(시계방향 순)〉

잘 지켜질 수 있나?

그러나 새롭게 달라진 지침 발표 이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역 지침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방침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 체계 자체는 각 대학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부산 소재 K대의 경우 최근 기숙사 입소 15일 만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반발이 심한 상태이다. 입소 총원이 1532명인데 16일 오전 기준 누적 확진자가 386명으로, 입소생의 25% 정도가 감염될 것이다. 학생들은 확진자 분리조치 미흡과 학교측의 허술한 방역관리로 인해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기숙사 가운데 유증상 학생이 PCR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 ‘음성’인 룸메이트와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는 비단 K대만의 일은 아니다. 기숙사는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올라와 함께 생활하는 거주공간이기 때문에 수업과 수업 외의 행사 외에도 대학측은 기숙사의 감염예방 관리 또한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코로나 창궐 이후 만으로 2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작은 화면에만 갇혀 있던 학생들의 학구열을 화면 너머로도 불태울 수 있도록 각 대학은 학생들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교육부, 동국대, 경희대, 국민대

[참조] 브릿지 경제, 뉴스1, 교육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

2022년 창업 지원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스타트업 중심으로”를 선언한 2022년 정부는 어떤 창업에 지원하려고 할까?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돕고 협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 ▲감염병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사회 산업 각 분야에 혁신을 이끌어줄 스타트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기술의 활용과 혁신을 통해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전통시장 등의 전통 산업분야의 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에 역점을 두는 창업지원 키워드는 총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술창업, 두 번째는 청년창업, 세 번째는 지역창업으로 이 키워드들에 맞춰 다양한 지원 사업이 준비되어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지자체 사업과 융자사업을 처음으로 추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94개 기관, 378개 창업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2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875명을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매년 1월에서 2월 입교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초기 청년창업가를 발굴해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교육과 지도,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년도부터는 전년도 사업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MZ세대가 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2.0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까지 5,842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으며, 5조 768억원의 누적 매출성과와 17,82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한다. ‘토스’와 같은 거대신성기업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기술 창업의 대표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미리 창업 아이템과 입교 준비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도전! K-스타트업 2022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창업경진대회’를 빼놓을 수 없다. 접수기간은 2022년 6월 23일까지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

중장년층의 재시작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창업시장에는 4050대 창업자들이 과반수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아이템과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 국내 창업 활성화 기여를 위해 대학생 창업자금 지원부터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운영기관이 합동하여 진행하고 있는 창업경진대회다. 운영기관이 다양한 만큼 ▲혁신창업리그 ▲학생리그 ▲국방리그 ▲관광리그 ▲환경리그 ▲여성리그 ▲부동산산업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산림리그 ▲지식재산리그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금은 최대 3억 원에서 최소 2천만 원으로 미수상팀 10팀은 별도 격려금 1백만 원~3백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 다양한 아이템들이 한데 모여 리그를 펼칠 수 있어,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통합본선 및 왕중왕전 진출팀은 창업사업화와 해외진출, 특허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후속연계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창업지원 인프라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창업지원포털에서는 수시로 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 공간 및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창업지원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창업존’ 등과 같은 사업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뜬 공고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존 2022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가 있었다. 지원내용으로는 보육공간, 보육프로그램, 인프라 시설 등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등 초기에서 성장 단계부터 투자 및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IP 디딤돌 프로그램

IP 디딤돌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사업아이템으로 고도화하고,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멘토링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혁신형 창업 유도 프로그램이다. 주로 아이디어 창출교육,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 및 창업컨설팅 등 맞춤형으로 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기반 사업아이템 도출 교육 ▲아이디어 기초상담 ▲IP기반 창업교육 ▲아이디어 고도화 ▲아이디어 권리화 ▲3D프린팅 모형설계 ▲창업 컨설팅 등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자금 확보, 기창업자 네트워크 및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남, 부산, 충남, 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창업지원포털을 참조하길 바란다.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청년 구직자 전용 집중 교육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실무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 연계를 해주는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청년인재 육성 및 매칭연계를 위해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에 맞추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분야인 게임, 금융, 유통 바이오에 대한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인재를 모집공고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마감일자를 참조해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4차 산업 혁명이 나타나면서 자동화나 무인화 등 기술개발로 인해 산업구조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점차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나타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채용을 늦추거나 취소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지원 자금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많은 청년들이 본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발견하고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 확보라는 현실문제에 부딪혀 창업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를 잘 찾아 다양한 혜택을 누리보기를 바란다.

글 - 김주희 기자 wngml5216@sungkyul.ac.kr
[참조] 벤처스퀘어, 창업지원포털, 한국청년창업진흥원

다 같이 자취하자! 자격증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에게 꼭 필요한 스펙인 자격증! 방학이나 시험이 끝난 후 막간을 이용해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을 알아보자. 이번 호에서는 한두 달만 바~짝 공부하면 단기취득 가능한 자격증을 추천하고자 한다!

컴퓨터활용능력

공기업이나 사기업 입사 시 베이스로 가져가는 자격증이다. 주로 사무에서 활용하는 컴퓨터 사용법 전반을 다룬다. 학습기간은 평균적으로 1~2개월이다. 시험방법은 1급은 필기 60분, 실기 90분이다. 2급은 객관식 60문항과 작업형이다. 응시료는 필기 17,800원, 실기 21,000원이다. 꿀팁으로는 실기를 먼저 공부한 후 필기는 문해행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 및 승진 시 반영한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한다. 학습기간은 평균적으로 1~2개월이다. 시험방법은 고급: 50문항, 70점 이상 1급, 60~69점 2급이다. 중급: 50문항, 70점 이상 3급, 60~69점 4급이다. 초급: 40문항, 70점 이상 5급, 60~69점 5급이다. 응시료는 고급 18,000원, 중급 16,000원, 초급 11,000원이다. 핵심키워드나 빈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개념을 꼼꼼히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무역영어

무역 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 시험이다. 학습기간은 평균 2개월로 시험방법은 1급: 객관식 75문항 90분에 100점 만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2급: 객관식 75문항 90분·평균 60점 이상, 3급: 객관식 75문항 90분·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료는 1급과 2급, 3급 모두 29,000원이다.

ITQ정보기술자격

한국생산성본부가 운영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컴퓨터 활용능력과 엑셀을 동시에 공부하며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학습기간은 평균 1개월로 시험방법은 주어진 파일을 열고 지시사항대로 문서를 편집한 뒤 저장하여 전송하면 된다. A등급은 400점 이상, B등급 300점 이상, C등급 200점 이상이다. 응시료는 1과목 18,000원, 2과목 34,000원, 3과목 49,000원이다. 비전공자여도 모의고사나 독학교재를 사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한다.

TESAT

상경 계열에서 취득하면 좋은 경제 상식 시험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공인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이다. 학습기간은 평균 1~2개월이다. 시험 방법은 1~30번은 경제이론 5개의 분야인 ▲기초, ▲금융, ▲국제, ▲미시, ▲거시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 31~60번은 시사경제 3개의 분야인 ▲상식, ▲정책, ▲경영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 61~80번은 ▲이슈, ▲의사결정, ▲자료해석과 관련한 3개의 분야에서 응용 문제가 나온다. 응시료는 30,000원이다. 인터넷 강의로 개념을 정리하고 교재를 통해 빈출 문제를 파악하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장기적인 공부가 필요한 자격증 외에도 단기로 준비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도 많이 있다. 관심 있는 자격증 시험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학교생활하면서 알차게 스펙도 쌓고, 학과별 자격증과 직무별 필요한 자격증들을 알아보고 미리 미리 취업 준비 해보자!

글 - 김주희 기자 wngml5216@sungkyul.ac.kr

익숙함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

움직일 필요 없이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터치하면 원하는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성 덕분에 온라인 쇼핑 선호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택배사인 CJ대한통운에서 택배 파업이 12월 28일부터 3월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며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과 갈등을 해결해 앞으로 파업 없는 정상적인 택배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용기



2020년 9월, 추석을 앞두고 5만 명 중 4천여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해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는 파업을 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해 처리해야 하는 물류량도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다. 2017부터 2019년까지 택배 기사 1인이 월평균 처리해야 하는 물량은 약 4,000개였으나 2020년에는 약 5,100개로 급격히 많아지며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다. 게다가 추석이 다가오면서 물류량이 평소보다 20% 늘어난 것이 화근이 됐다. 그러나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

되는 택배 분류 작업은 일명 ‘공짜 노동’으로 불리며 해당 작업에 대한 수당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자도 늘었지만 실제 산재보험이 적용된 택배 기사는 전국에 7000명뿐이었다. 어두운 현실 속 대우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파업이 시작된 것이다. 택배 물류량이 증가하는 성수기에 해당되는 명절 기간을 대비해 정부는 하루 평균 만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며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의 노력과 분류 작업 거부로 인해 국민들이 겪을 불편함을 고려해 각 택배사와 대리점에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을 발송하고,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따른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하겠다고 입장을 재표명했다. 즉, 터미널별로 2시간 이내 지연 출근함으로써 택배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이 지원되는 만큼 총 노동시간을 줄여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자동 분류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택배기사 과로 실태 조사 및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2020년의 택배 파업은 마무리됐다.

양측의 간극

택배사·정부와 대책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2022 택배 총파업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파업보다 더 규모가 커진 이번 파업, 그 원인은 무엇일까? 택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분류 작업 인력 투입 등의 합의사항이 현재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택배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인상된 택배비를 택배사의 초과이익으로 챙기고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는 부속합의서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분류작업 인력 투입 정책에 대해서도 택배 기사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정부의 단속을 피하면서도 이익은 챙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인상된 택배 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연 5,000억 원의 요금 인상분 중 3,000억 원을 추가 이익으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여전히 택배기사의 분류작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 무조건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어 표준계약서 자체를 무력화하는 등 노동자의 처우 개선보다는 택배사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기에 해결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파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의 입장은 노조와 대책위에 위치해 있다. 2021년 4월에 물류자동화 설비 투자·작업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택배비를 25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택배 요금은 화물업체와 협상하거나 입찰 형태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른 택배비는 140원이고, 이의 50%에 해당하는 약 70원을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했다고 피력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택배사업의 영업이익은 매출액 대비 크지 않아 택배 노조가 주장하는 3,000억 원은 어불성설이며, 1월부터 5500명의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그들에게 분류 인력 비용을 100% 지급하는 등 사회적 협의를 착실하게 이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모두의 희망

노조와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택배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도 많다. 택배사의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극심한 배송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소상공인은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파업이라는 명목하에 분사 불법 점거, 집단 폭력 등 공격적인 행동으로 일반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택배를 받지 못해 구매자가 환불을 하려 해도 환불 신청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판매자가 상품 회수 후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불 불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역시 피해를 받고 있다. 택배 파업으로 인해 온라인 주문을 원활하게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판매 기회 상실로 인한 주문량 감소가 이어져 가게 매출이 하락한 것이다. 또한 고객들의 배송 지연 불만과 민원을 소상공인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 택배기사 역시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이다. 현재 파업에 참여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전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약 8%에 불과하다. 비노조 택배기사가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사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택배파업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며 타 택배사로 물류가 가는 거래처 이탈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비노조 택

배기사의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실태다.

그렇다면 택배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파업의 목표였던 노동 환경 개선 및 적절한 노동량 및 그에 따른 급여 지급 등 파업 취지에 공감을 표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파업이 일어나고 약 70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택배를 제시간에 받지 못하자 최근에는 파업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즉, 노조와 택배사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파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지치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노조와 CJ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며 피해가 커지는 현 상황에 필요한 것은 노사 대치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갈등이 원만하게 협의돼 파업이 종료되고 같은 문제로 파업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방안을 찾고 해당 정책이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파업 종료 선언이 이뤄졌으나, 택배 파업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현재 상황에 안주하기보다 양측의 입장을 잘 헤아리며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정상적인 택배 배송으로 우리가 누리는 생활 속 편리함과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지속되길 바란다.

글 - 노하은 기자 dmlsu7226@sungkyul.ac.kr

사진 - 뉴시스, 중앙일보

[참조] 연합뉴스, KBS

기자담판

-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부활, 과연 필요할까? -

실시간 검색어가 본래 목적인 트렌드를 한눈에 보여주기보다는 여론조작과 왜곡, 신뢰성 논란 등의 문제로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이에 2021년 2월 25일 네이버는 2005년 5월부터 시작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16년 만에 완전히 폐지했고, 다음 역시 2020년 2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실시간 검색어가 폐지된 이후 정보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재개해 달라는 요청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할까?

실시간 검색어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많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사회 이슈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여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포털 뉴스 이용자의 69.5%가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한 후에 기사를 본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실시간 검색어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이용자들이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 왔다. 실시간 검색어는 지하철 고장이나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서 신속하게 알려 사람들이 빠르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갖고 있다. 또한, 실시간 검색어가 사라지기 전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가 적시에 이용자들에게 전달돼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확산현황 등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다수의 사람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한다는 강점을 가진 실시간 검색어의 빈자리는 2021년 3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더욱 부각됐다. 운영체제의 문제로 인해 여러 어플들이 실행되지 않았던 것인데 자신의 스마트폰이 고장난 줄 알고 삼성전자, LG전자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이 쇄도한 것이다. 만약 이때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다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러 사람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시간 검색어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정보나 사회적 이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 실시간 검색어의 부활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가 사라진 이후 아직 실시간 검색어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포털 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네이트', '줌(ZUM)'의 사용자 수가 2021년 3월 한 달 사이 일제히 증가했다. 네이트는 2월 372만 명에서 3월 476만 명으로 28% 늘었고, 줌도 3만 2000명에서 5만 1000명으로 56% 증가했다. 사용 시간 또한 네이트와 줌 각각 30%, 54%씩 늘어났다.



실시간 검색어가 악용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역기능이 무서워 순기능이 가져오는 역할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는 것보다는 악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글처럼 원하는 이용자만 실시간 검색어에 접근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구글은 '구글 트렌드'라는 검색어 키워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직접 검색을 해야만 실시간 검색어를 볼 수 있다. 이는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실시간 검색어가 있던 네이버나 다음과는 달리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싶다면 직접 찾아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이용자만 사용하면 된다는 차별점이 있다.

이처럼 이용자들이 여론을 파악하고 자신의 알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뒤,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재개한다면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대중들이 서로의 관심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 - 박미경 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기자 본인
[참조] 미디어 오늘, 헤럴드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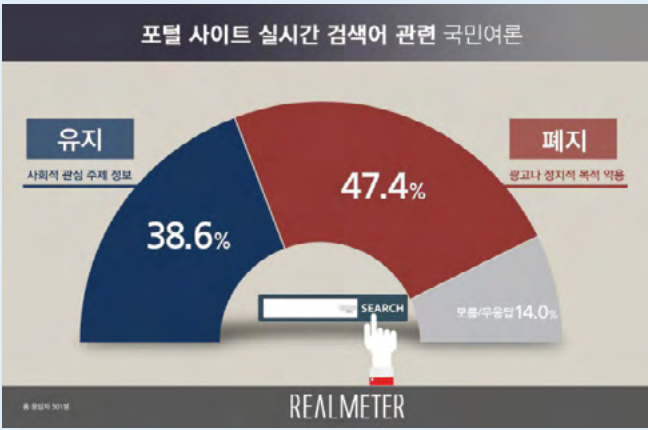
필자는 수많은 여론 조작과 확인되지 않은 여론 형성으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실시간 검색어 부활을 반대한다.

실시간 검색어는 정치·사회적 이슈 발생시 우리에게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공익적인 빅데이터 역할을 했다. 우리는 평소 검색과 쇼핑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방문했지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검색어 순위를 발견해 새로운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정치·사회·연예 이슈를 하나하나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우리에게 실시간 검색어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실시간 검색어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노출되어 여론을 형성하기 쉬운 매개체이다. 그러나 실시간 검색어가 우리 생활에 좋은 영향만 끼칠까?

네이버는 2021년 2월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했다. 실시간 검색어를 정치·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소식 전달과 여론 형성 등의 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시간 검색어의 특성상 누구나 접할 수 있어 순위를 조작하여 인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거나 여론을 선동하여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실을 퍼뜨리려는 집단은 갈수록 늘어났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실시간 검색어는 안전하고 올바른 매개체로 남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조작을 하는 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슈와 의견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와 같은 선부른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 검색어가 정치판의 희생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조국 힙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와 같은 검색어가 올라왔다. 이는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면 이슈화가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자 진영의 의견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린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잘못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실시간 검색어가 더 이상 결과의 반영이 아닌 현상의 시작점이 돼 버렸다면 안타까워했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7.4%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시간 검색어가 광고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쉽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 외에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8.6%, 무응답이 14%로 나타났다. 이처럼 점점 실시간 검색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어 폐지에 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실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를 없애기 전 한차례 개편을 진행했었다.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 '리요(RIYO)'를 도입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게 카테고리를 설정한 후, 개인별로 다른 실시간 검색어를 띄우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조차도 선부른 여론 형성의 희생양이 되며 실패로 돌아갔다.

실시간 검색어가 폐지되면서 이전처럼 과도하고 잘못된 정치적 여론 형성과 선동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실시간 검색어 폐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의 시작이 결국 수많은 기업들과 정치 관련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욕심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됐고, 앞으로도 그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이다. 실시간 검색어의 부활을 위해선 이들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과 잘못된 여론 형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글 - 김채린 기자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미디어스
[참조] - 뉴스투데이, 민중의 소리



대학생활백서

모두 주목!

새로운 시작의 첫 발을 내딛은 신입생에게는 멀고도 험하게 느껴지는 대학 생활. 쏟아지는 정보에 지쳐 있을 새내기들을 위해 모든 정보를 한곳에 담았다! 이번 기획면에서는 아직 대학교가 생소할 신입생들부터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진 언택트 세대 학우들까지 참고할 수 있는 대학생활백서를 다루고자 한다.

날날이 파헤쳐 주마! 함께 하는 성결대학교 캠퍼스 투어

대학교는 하나의 건물에 거의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고등학교와 달리 여러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수업을 들으며 하루에 몇 번씩 건물을 이동하다 보면 웬만한 구조는 자연스레 익히게 되겠지만 학기 초에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아슬아슬하게 학교에 도착해 건물을 찾느라 강의실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 지각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학보사와 함께 캠퍼스 투어를 떠나 건물 위치와 더불어 선배들이 개발한 지름길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재림관

재림관은 유일한 흰색 건물로, 돌계단 위에 위치해 있다. 재림관 1층에는 ▲입학 홍보과 ▲학사관리과 등의 행정 사무실들이 모여 있다. 이 중에서도 학사관리과는 직접 방문할 일이 많으므로 미리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입학 ▲휴학 ▲복학 ▲전과 ▲복수전공 신청 등 학적사항 변동이 있을 때는 학사관리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층에는 취업지원과가 있어 재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4층에는 편히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다. 본교 3학년이 되면 CDP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 또한 2층 취업지원과다. 5층부터는 대학원교육학과가 마련되어 있어 주로 대학원생들의 강의실로 쓰인다. 재림관 2층으로 나오면 뒤쪽 운동장으로 이어진다고 하니 이 점 또한 잊지 말고 잘 활용하도록 하자.

기념관



학생회관

학생회관은 영암관 아래쪽 사범대의 건물이다. 학생회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뒷문으로 나가면 영암관 바로 앞으로 도착한다. 중생관과도 매우 가까우니 시간이 넉넉한 상황이라면 힘들게 오르막길을 오를 필요 없이 학생회관 지름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학생회관 1층에는 잡카페와 글로벌라운지가 위치하고 있다. 2층의 교내 보건진료소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된다. 3층은 ▲헬스장 ▲무도실 ▲동아리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4층에는 ▲체육관 ▲체육교육과 행정실이 있다. 본교 대부분의 과방 또한 학생회관에 모여 있다.

학술정보관



주로 '학정'이라 불리는 학술정보관은 본교 건물 중 가장 눈에 띄는 외관이다. 성결대학교 간판이 커다랗게 붙어 있고 유리창이 건물 한 면을 채우고 있다. 운동장에서 기념관을 마주보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건물이다. 학술정보관의 운영 시간은 학기 중 평일 09:00부터 21:00이다. 방학 중에는 평일 10:00부터 16:00까지만 운영한다고 한다. 주말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니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학술정보관의 1층부터 6층은 대부분 도서관으로 사용된다. 특히 1층에는 카페와 노트북 열람실이 있는데, 열람실은 물론이고 일반실까지 콘센트가 구비되어 있어 공강 시간을 보내기 제격이다. 학술정보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재학생 QR코드 인증이 필요한데 이는 모바일 학생증에서 발급할 수 있다. 시험 기간에는 자리를 찾기 쉽지 않으므로 어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통합예약' 어플을 다운 받으면 층별 잔여좌석 현황을 알 수 있다. 또 학술정보관에서는 스터디룸 대여도 가능하니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에서 소규모 회의나 스터디도 가능하다. 책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까먹지 말고 미리 이수교육을 받아놓도록 하자.

중생관



중생관은 언덕 가장 위에 위치한 사회과학대의 건물이다. 앞서 언급했듯 기념관 2층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3층은 영암관과 이어진다. 중생관 3층 북도의 왼쪽에 위치한 문이 바로 그 통로다. 중생관 지하에는 ▲학생식당 ▲매점 ▲동아리실이 자리하고 있다. 학생 식당은 11:00부터 18:30분까지 운영되며, 15:30부터 16:30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2층부터 4층은 사회과학대의 강의실로 사용된다.

영암관



영암관은 중생관 바로 옆에 위치한 인문대의 건물이다. 주로 ▲피아노 실습실 ▲연구실 ▲강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3층은 중생관, 4층은 학생회관으로 통한다.

성결관

성결관은 공과대학의 건물이다. 본교 정문을 지나 왼 인도로 오르막길을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건물이다. 1층부터 4층까지 차례로 ▲산업경영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의 실습실로 이루어져 있다. 성결관은 후문과 가장 가까운 건물이므로 ▲중생관 ▲영암관 ▲성결관 ▲학생회관에서 수업을 마친 후 명학역으로 갈 때는 후문을 이용하도록 하자.

신유관



신유관은 기숙사 건물이다. 캠퍼스와 동떨어져 있어 찾기 쉽지 않다. 1층부터 4층까지 기숙사가 있으며 식당은 2층에, 세탁실이나 샤워장 같은 편의시설은 3층에 위치해 있다.

대학생이라면 필수! 꿀팁 200% 활용하기

#오피스, 아직도 돈 내고 이용하니? 오피스 무료 설치 팁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오피스. 오피스에서는 파워 포인트부터 ▲엑셀 ▲워드까지 대학 생활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재학생 한정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가입 방법은 간단하다. 학교 웹메일만 있으면 된다. 먼저 크롬으로 <https://mail.sungkyul.ac.kr>에 접속 후 성결대학교 포털 계정으로 로그인한다. 네 개의 프로그램 중 MS Office를 클릭하여 동의절차를 거친 뒤 다운 받는다. 웹메일은 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 타임' 인증에도 사용되므로 미리 발급해 놓는 것이 좋다.

#울클 하고 싶다면 주목!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수강신청 진짜 꿀팁

학기가 시작되면 ▲신입생 ▲재학생 가릴 것 없이 가장 걱정하는 일이 바로 수강신청일 것이다.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설렘 반, 두려움 반' 속 두려움이 수강신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치열한 경쟁으로 걱정이 많은 학우들을 위해 그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수강신청의 진짜 꿀팁을 알려주 고자 한다.

수강신청을 하기 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과목 신청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공 과목 3개와 교양 과목 3개를 신청한다고 치면 상대적으로 사람이 몰릴 것 같은 교양 과목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정석적이다. 전공 과목의 경우 해당 학년 전공생 숫자에 맞게 인원을 조정해 비교적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공 필수 과목은 교양 과목처럼 학년을 가리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에브리 타임 등의 커뮤니티를 활용해 강의 평을 살펴보고 인기가 많은 과목의 순위를 가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목 신청 순위를 정했다면 대체 과목을 생각해야 한다. 처음 계획한 수강신청에 실패했을 때 빈 시간에 어떤 과목을 채울 것인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다. 대체 과목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많이 차지 않을 수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수강신청을 하는 동안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새로 고침 하지 않기'다. 수강신청 페이지는 앞선 대기자가 모두 빠져나가야만 입장이 가능한데 새로 고침을 누를 경우 다시 뒤 순서로 밀리게 된다. 또 검색 중에는 과목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과목명을 하나하나 적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시간대로 잘못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검색 방법인 과목코드를 활용하도록 하자. 과목코드는 시간표를 계획할 때 미리 다른 곳에 적어 두는 것이 좋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학기는 특히 ▲입학한 지 한 달 된 신입생 ▲군대를 막 제대한 복학생 ▲대면 수업을 처음 받아보는 재학생 모두 설렘과 두려움을 동반한 학기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 이들에게 필자는 두 가지 말을 건네고 싶다. 그간 고생했다고, 그러니 앞으로도 파이팅 하자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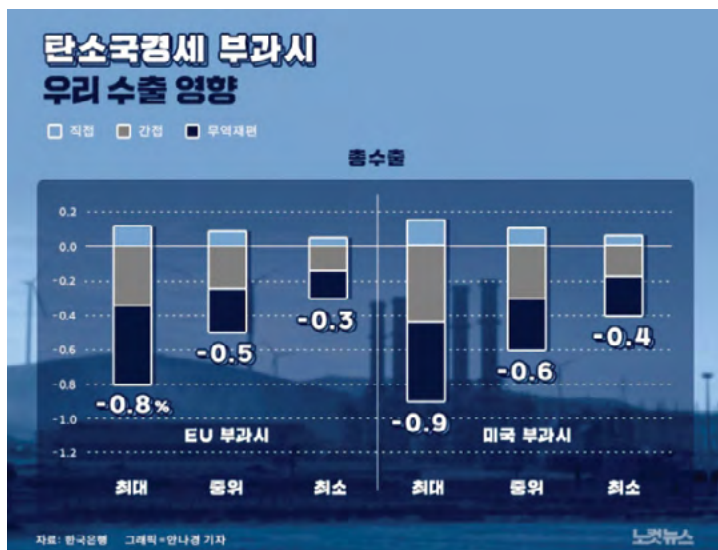
학교는 우리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달리기보다 해야 하지만,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장 거리를 달려야 한다. 그러니 이 기사를 읽는 모두가 쉬어 가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학우들과 이 결승선 없는 달리기 완주하고 싶다.

글 - 고은성 기자 ges0188@sungkyul.ac.kr

사진 - 총학생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경영 방침이나 목표 즉, 기업의 존재 이유는 높은 이윤 창출에 있었다. 매출을 낼 수만 있다면 환경이나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는 것쯤은 암묵적으로 허용됐고 기업은 이를 아주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소비자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라 기업은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경영 목표를 변화시키고 있다. 시작점은 최근 기업 경영의 새로운 목표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이다. 그렇다면 ESG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업이 환경과 함께 성장하는지 알아보자.



ESG는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 사회를 뜻하는 Social, 지배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의 머릿글자를 딴 약어로 기업의 재무적 측면이 아닌 그 외적인 요소들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기업은 환경 분야, 특히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이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경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글로벌 투자 유치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 입법안도 동시에 공개했다. 만약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및 기업의 상품을 생산·수입한다면 추가로 관세를 내거나 상황에 따라 수출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은 기업이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됐다. 대기업 10곳 중 7곳은 ESG 경영 중 환경 부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답했으며 환경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현대 제철은 최근 44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설비투자 계획을, 한화건설은 2030년까지 2GW 규모의 풍력 사업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롯데케미칼은 2023년까지 안전·환경 부문에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환경 보호와 기업 성장이 함께 이뤄지는 ESG 경영에 대해 기업들은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2년 2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의 ESG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86개의 회사 중 81.4%가 작년 대비 올해 ESG 사업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ESG 사업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업은 18.6%였으며 사업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없었다.

과거보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기업은 환경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 또한 소비자이자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는 지구촌 사람으로서 환경을 아끼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아닐까?

글 - 박미경 기자 qkrulud0827@sungkyul.ac.kr

사진 - 노컷뉴스

[참조] 조선일보

여기 뭐 할 거 있선? 혜화역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는 서울 메트로. 역마다 어떤 놀거리가 있는지 궁금해 만든 대리만족 코너, 여기 뭐 할 거 있선? 이번 호에서는 온갖 놀 거리로 가득하고 젊음이 살아 숨쉬는 공간 혜화역에 가 봤다.

혜화역의 숨은 명소



혜화역을 생각하면 대부분 대학로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혜화역의 숨겨진 핫플레이스는 따로 있다. 바로 낙산공원 한양도성길과 이화벽화마을이다. 혜화역 주변 대학로가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면, 낙산공원 한양도성길과 이화벽화마을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기에 딱 좋은 장소다. 한양도성길을 쫓 건다 보면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인생 샷을 남겨 보자.

TIP 낙산공원에서 이화벽화마을로 내려가는 길 사이에 예쁘고 아기자기한 카페가 많이 있으니 둘러 보는 것을 추천!

대학로는 역시 연극이지!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고 내려왔다면 기분 전환을 할 차례! 대학로에서는 정말 다양한 연극들을 볼 수가 있다. 로맨스, 코미디, 추리물까지 없는 게 없는 대학로 연극! 한바탕 웃으며 연극을 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TIP 인터넷을 통해 티켓을 예약하면 현장예매보다 더 저렴하니 미리 알아보고 예매하는 것을 추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즐기는 다양한 디저트



연극을 보고 나왔다면 달달한 디저트로 마무리를 해 보자! 혜화역에는 정말 다양한 디저트 가게가 있지만, 필자가 먹어본 디저트 중 가장 맛있었던 두 가게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학로에서 5분 정도 걷다 보면 보이는 까눌레 맛집 <헤이스윗>. 이곳은 까눌레 뿐만 아니라 여러 쿠키 종류도 팔고 있으니 충분히 구경하고 고민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대학로에서 3분 정도 걷다 보면 보이는 마카롱 맛집 <하이제씨>. 다양한 마카롱과 구움 과자를 팔고 있는 가게다. 달달한 마카롱과 아메리카노는 최고의 조합!

조용함과 왁자지껄의 매력을 모두 담고 있는 혜화역. 이번 주말, 혜화역으로 나들이를 나가 그 매력에 빠져 보는 것은 어떨까?

글, 사진 - 김채린 기자 cofls787@sungkyul.ac.kr

어서 와~ 캠퍼스는 처음이지?

춥고 시린 겨울이 가고 푸른 봄이 찾아왔다. 캠퍼스에는 개강을 맞이해 학교로 발걸음 하는 학생들로 가득하다. 올해부터는 전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학번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개강은 싫지만, 캠퍼스 생활은 언제나 기대되는 법. 캠퍼스에 대한 로망으로 가득한 학우들을 위해 캠퍼스 드라마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역도요정 김복주
개요 ▲ 드라마
편성 MBC 2016.11.16. ~ 2017.01.11.
총 16부작
출연 배우 이성경, 남주혁,
경수진, 이재윤 등

여기 꿈을 꾸는 한 소녀가 있다. 바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 한얼 체육대학교 역도부의 에이스 김복주다.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딸 만큼 남다른 힘과 체력을 가지고 있는 복주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역사가 되는 게 꿈이다. 자랑스러운 역도 유망주인 복주지만 정작

학교에서 역도부는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힘꾼에 불과하며 매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 일쑤다. 하지만 그 누가 뭐라 해도 역도부를 사랑하는 복주와 복주의 친구들, 코치님과 교수님 덕분에 역도부는 언제나 웃음으로 가득하다. 그러던 중 복주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발생하는데...

메시 좋아하세요?

바벨과 먹는 것, 친구들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던 복주에게 남자친구는 그저 환상 속 인물에 불과했다. 이런 복주에게 어느 날 처음으로 사랑을 알려주는 운명의 남자가 등장한다. 처음으로 복주를 여자로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대우해 준 남자. 바로 비만 클리닉 의사이자 복주의 초등학교 동창 준형의 형인 재이다. 재이의 등장은 복주의 평범했던 삶을 뒤흔들어놓는다.

복주는 처음 느끼는 사랑이란 감정이 어렵기만 하다. 남자들은 축구 이야기에 환장한다는 친구 난희의 말을 듣고 복주는 재이에게 어색한 물음을 던진다. “선생님 혹시 메시 좋아하세요?” 과연 복주는 자신에게 처음 찾아온 사랑을 당당하게 쟁취할 수 있을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나의 비밀들

재이의 비만 클리닉을 다니기 위해 역도

가 아닌 첼로 전공생이라 속이게 된 복주. 하지만 시합을 위해 체급을 올려야 하는 역도선수에게 비만 클리닉은 상상도 못할 공간이다. 재이에게는 자신이 역도 선수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코치님과 교수님께는 비만 클리닉을 다니는 것을 숨기기 위한 복주의 고군분투가 시작된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복주는 코치님과 교수님께 비만 클리닉을 다니는 사실을 들려버리고 만다. 복주의 태도에 단단히 실망한 코치님은 이유를 묻지만, 복주는 차마 남자 때문이라 말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 혼자 삼켜버린다.

머피의 법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안 좋은 일은 왜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설상가상으로 재이는 복주가 역도선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복주를 응원하기 위해 시합장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지친 모습으로 역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복주는 시합장에 온 재이의 얼굴을 보고 큰 상실감에 빠진다. 그렇게 좋아하던 바벨과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자신의 굳은살이 부끄러워진 복주는 그날 이후로 큰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겪어 본 슬럼프에 혼란스러워진 복주는 운동을 쉬며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게 되고 난희와 선욱,

준형은 복주가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복주는 자신의 곁에서 걱정해 주는 친구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친구들과 가족의 도움으로 슬럼프를 이겨낸 복주는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바벨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다짐하게 된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진 복주를 걱정하던 준형은 점차 자신이 복주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복주는 그동안의 시련은 모두 잊고 다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간다. 청춘이란 끝없는 고난 속에서 목표를 위해 끝없이 나아가는 것. 복주는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역사가 될 수 있을까?

‘역도요정 김복주’는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대학생들의 청춘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같은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가졌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주인공들의 각기 다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드라마다. 재능은 있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역도를 그만둬야 하는 선욱, 리듬체조를 사랑하지만 실력이 부족해 선수촌에서 퇴출된 시호까지. 주인공뿐만 아니라 복주와 준형의 친구들의 다양한 서사를 볼 수 있다. 또한 복주와 준형이의 이야기를 통해 캠퍼스 로망의 꽃이라 불리는 알콩달콩한 연애의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청춘 드라마다.



제목 치즈인더트랩
개요 ▲ 드라마
편성 TVN 2016.01.04. ~ 2016.03.01.
총 16부작
출연 배우 박해진, 김고은,
서강준, 이성경 등

그 남자의 또 다른 얼굴

누가 대학생을 청춘의 꽃 같다고 했던가. 하루하루 과제에 치여 살며 등록금을 벌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다니는 대학생들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꾸며내기엔 너무나 혹독하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어도 모자란 이 시대 청춘들 가운데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스물세 살 여대생 ‘홍설’이 있다. 평범한 날의 연속이던 설이의 주변에 어느 날부터인가 한 남자가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다. 그는 바로 학교 선배인 유정. 외모면 외모 스펙이면 스펙 뭐 하나 빠짐없는 완벽남 유정이지만 설이의 눈에는 뭔가 꺼림직하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선배의 어두운 이면을 발견한 설. 그렇다. 저 착한 얼굴은 전부 가짜다!

누가 꿈이라고 말해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유정으로 인해 휴학을 결심한 설이. 하지만 자신이 이번 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라는 조교의 말에 결국 휴학을 하지 못한다. 가뜰이나 휴학도 못해 기분이 심란한데 누군가 설이의 수강신청을 고의적으로 취소해 막대한 높은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될 처지에 놓인다. 거기에 정말 피하고 싶던 조별과제까지!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려는 설이지만 최악의 조별과제 빌런들을 만나고 만다. 매번 남에게 할 일을 미루는 다영,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민수,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과제는 뒷전인 상철. 설이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길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결국 과제를 모두 떠안은 설은 조별 발표까지 망쳐버리고 교수에게 꾸중과 낮은 점수를 받으며 다음 학기 학비 걱정에 빠진다.

정신없는 하루의 연속인 설이의 앞에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난다. 바로 ‘치즈인더트랩’의 또 다른 주인공 인호다. 인호는 설이에게 유정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다며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는데...

나도 가끔은 위로를 받고 싶다.

학교 일로 심란한 설이에게 부모님은 동생의 유학비를 내기 위해 자취방을 빼고 통학할 것을 권유한다. 왕복 4시간을 통학하게 생긴 설은 화가 나지만 동생을 위해 자취방을 빼기로 한다. 모두가 설이를 만만하게 보는 건지 만나는 사람마다 지친 설에게 온통 부닥만 한다.

‘치즈인더트랩’의 주인공 설이는 집안에서 항상 동생에게 뒷전인 관심 밖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숙하다고 느껴지는 설이도 사실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다. 설이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위로를 받고 싶다. 참다못한 설이는 가족 앞에서 소리 지른다. ‘나는? 나는 누구에게 의지해?’

각기 다른 상처들

‘치즈인더트랩’은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외에도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에 대한 에피소드도 볼 수 있다. 매번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두 얼굴로 살아가는 유정과 그런 유정을 미치도록 싫어하는 인호까지, 그들이 안고 있던 상처들의 서사를 통해 청춘이 마냥 영화 같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은 ‘역도요정 김복주’와 다르게 정말 현실 대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박 터지는 수강신청, 조별과제의 연속... 어느 주위를 둘러봐도 한 명씩 있는 그런 평범한 대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드라마다. 대학교는 하나의 또 다른 사회라고 하지 않는가? 이를 보여주듯 드라마 ‘치즈인더트랩’에서는 주인공이 다양한 인물들과 엮이며 고난과 시련을 겪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고군분투하며 극복하는 주인공들을 보는 것도 이 드라마의 묘미다.



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개강이라는 두려움과 더불어 캠퍼스 생활이라는 설렘이 우리를 반기고 있다. 로망은 현실과 다르지만 캠퍼스 생활은 언제나 기대가 되기 마련이다. 이번 기사를 통해 캠퍼스 로망을 마음껏 만끽해 보는 건 어떨까?

글 - 김채린 기자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SBS 홈페이지, TVN 홈페이지

지금은 구독 경제 시대

현재 대한민국에는 구독 서비스 열풍이 불고 있다. 넷플릭스, 왓차, 티빙 등 OTT 플랫폼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 경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기호에 맞춰 적절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독해 이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소비를 실현한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구독 경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지금은 구독 경제 시대

구독 경제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마다 일정액을 지불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유통 전략이다. 이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는 책·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받는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구독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급

증하며 성장세를 보였고 오프라인 서비스를 집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기업은 구독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구매 여정을 단계별로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로열티를 가진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OTT가 주도하는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의 대표적인 주자는 단연 OTT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로,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각 OTT 플랫폼은 오리지널 콘텐츠나 TV 프로그램의 방영권을 독점해 경쟁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영화 개봉이 늦어지고 영화관과 OTT 플랫폼에서 동시 개봉하는 영화가 증가하고 있다. 굳이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클릭만으로 쉽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은 OTT 플랫폼 이용 증가의 원인이기도 하다. 넷플릭스나 웨이브 등 일부 OTT 플랫폼에서는 계정 공유가 가능하다. 구독자들은 계정 공유 파티를 만들어 파티원들을 모집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해 구독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기업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가장 대표적인 OTT 플랫폼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인터넷(net)과 영화(flicks)의 합성어이며, 프리미엄 월 요금은 17,000원이고 최대 4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와이즈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넷플릭스 결제 금액은 2월 한 달간 전년 동월 대비 3

배 이상 증가한 72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국가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에서만 국한돼 있던 콘텐츠를 비영어권 국가의 콘텐츠까지 한글 자막을 통해 볼 수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역시 넷플릭스에서 생산한 오리지널 콘텐츠다. '오징어 게임'은 많은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상에서 여러 밈으로 활용되며 OTT 콘텐츠의 파급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외에도 웨이브, 티빙, 왓차 등 각 OTT 플랫폼은 흥미로운 콘텐츠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런 것도 구독해?



편리함과 독특함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이색적인 구독 서비스도 있다. 국내 첫 전통주 구독 서비스인 '술담화'는 매달 정해진 테마에 맞게 선별한 2~4종의 전통주와 큐레이션 카드를 담은 담화 박스를 제공하고 구독자는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각양각색의 술을 즐길 수 있다. '술담화'의 구독 서비스는 전통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술 문화를 더욱 혁신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는 누적 구독자 23만 5,000명을 기록해 구독 서비스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

롯데제과는 구독을 통해 한 번에 다양한 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월간 생빵'을 선보였다. 이 구독 서비스는 공장에서 생산한 빵을 도매점이나 소매점 등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독자에게 직배송해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제공한다. '월간 생빵'은 구독자

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매월 다른 테마로 진행되고 구성품은 구독자가 배송받기 전까지는 비공개다. 이 구독 서비스 이용료는 첫 결제 이후 매월 자동 결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개그우먼 이은지를 통해 화제가 된 구독 서비스가 있다. 바로 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다. 이는 해당 사의 모바일 앱으로 세탁물 수거 신청을 하고 이동식 수거함에 세탁물을 담아 현관 앞에 두면 다음날 세탁물이 깨끗하게 세탁돼 배달된다. 수거함에는 의류 및 신발, 이불 등 전용 봉투가 동봉돼 여러 종류의 세탁물을 편리하게 담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빨래뿐만 아니라 드라이클리닝도 가능하다.



#티끌 모아 태산, 합리적인 구독을 위해서

구독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 향상이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구독은 일상 속 편리함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소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구독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구독료다. 실제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귀찮음이나 혹시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정기적으로 구독료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업의 서비스 독점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는 OTT이다. OTT의 경우,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TV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권 독점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 만약 '지금 우리 학교는', '여고추리반', 'SNL 코리아 시즌2'를 모두 보고 싶

다면 넷플릭스, 티빙, 쿠팡 플레이에 모두 가입해야만 이 세 가지 콘텐츠를 볼 수 있다. OTT 플랫폼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다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콘텐츠만을 보기 위해 지출을 하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구독 서비스로 인한 편익이 지출보다 작다면 이는 합리적인 구독이 아니다. 단지 조금 더 편하다고, 혹은 귀찮음의 이유로 구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지출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구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사진 - 넷플릭스, 롯데제과, 런드리고

[참조] 매일경제, 투데이코리아, 중소기업뉴스



고개를 숙인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

전 세계인이 울고 웃었던 2022 베이징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의 황대헌,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석 선수 등 많은 선수들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과거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아야 했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다. 바로 마라톤의 손기정 선수다. 이번 호에서는 손 선수의 그날을 알리고자 한다.

#어린 시절부터 달려 도착한 올림픽

손기정 선수는 1912년생으로, 평안북도 신의주 출생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달리기엔 큰 소질을 보인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안의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해 5,000m 종목에서 우승을 거뒀다. 어린 나이에도 마라톤이라는 종목에 참여해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했기 때문이다. 갖은 고생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는 스케이팅을 타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하지만 돈이 없었기에 스케이팅 대신 마라톤을 선택하게 됐고, 이를 통해 마라톤에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그의 마라톤은 계속됐다. 1931년 조선신궁대회의 평안북도 대표로 출전해 우승을 했으며 1932년에는 동아일보사 주최 경영 마라톤 대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이를 계기로 육상 명문 학교인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됐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1933년에는 고려육상경기회 주최의 크로스컨트리 경주대회에서 우승을, 1935년에는 도쿄에서 열린 베를린 올림픽 파견 후보 1차 선발전에서 2시간 26분 14초로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된다. 같은 해 조선 마라톤 선수권대회와 올림픽 선발 2차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 기세를 이어 베를린에서의 20km 마지막 최종 평가전에서도 1위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다.

#올림픽 신기록과 일장기 말소 사건

마라톤에 대한 손기정 선수의 열정과 재능은 올림픽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2시간 29분 19초라는 기록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워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국이 아닌 일본의 국가대표로 출전한 그는 시상대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월계수 화분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리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이런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본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진 속 일장기를 흐리게 하거나 지우는 등의 항거를 했다. 이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해 조선중앙일보는 여운형의 사퇴와 폐간을, 동아일보는 간부 사직과 구속, 무기한 정간의 징계를 받았으며 손기정 선수 또한 경기 출전이 금지됐다.



#이후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없다는 슬픔에도 그가 올림픽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조국을 알리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손기정 선수가 사인을 할 때는 한글로 이름을 적은 후 'KOREAN'을 덧붙였는데, 이는 그의 마음가짐을 잘 보여준다. 이후에도 독립운동가 여운형을 도와주는 등 독립을 위해 애썼으며, 해방 후에는 일본으로 돼 있는 금메달을 대한민국의 금메달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그의 노력은 세계 각국이 손기정 선수의 조선 이름과 국적을 인정하게 했고, 일본 교과서에도 조선의 마라톤 선수로 실리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마침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성화 봉송을 하며 그의 설움을 씻게 된다.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는 회고록에 “회사 앞에 아심한 삼경(三更)이건만 운집한 대군중 모두가 전파 일성에 환희 일색이요, 함성 환호뿐이다. (중략) 목이 터지게 외치는 ‘손기정 만세!’ 소리는 기미년 독립만세 소리에 방불한 바 있었다”라며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소식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담았다. 또한 이 기자는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지우고 심기는 부지기수였으며, 이러한 우리로서 어찌 손기정 선수 유니폼에 섰던 명했던 일장 마크를 그대로 실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덧붙혔다. 이렇듯 회고록의 내용은 손기정의 금메달과 노력, 그리고 식민지 시절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외쳤던 선조들의 모습과 언론의 용기 있는 투쟁을 보여준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손 선수와 선조들의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올림픽을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글 - 이서연 기자 tjds1596@sungkyul.ac.kr

[사진] 손기정평화마라톤대회/[참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물한국사, 동아일보



해전을 거친 잠수함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신비의 세계 ‘바다’. 산소 없이 숨을 쉴 수 없는 인간에게 바다는 호기심의 영역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잠수함을 이용해 깊은 바다를 탐험하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해전과 함께 성장한 잠수함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잠수정의 등장

잠수함은 심해 세계에 궁금증을 지닌 인간의 문제의식 속에서 처음 시작됐다. 수중에서 오랜 시간 빠르게 움직이고자 하는 작은 욕구로부터 고대인들은 잠수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발명품 ‘잠수함’은 어떤 역사를 거쳐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을까?

1578년, 영국의 수학자 윌리엄 본은 밸러스트 탱크가 적용된 잠수정을 최초로 개발했다. 선체 좌우에 가축 주머니를 부착해 해수가 유입되면 물속에 가라앉고 반대로 해수를 배출하면 물 위로 떠오르는 방식을 이용했다. 더불어 선체 중앙에는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쭉한 관을 세웠으며 내부는 2층으로 나뉘 상부에는 사람, 하부에는 화물의 공간을 만들었다.

윌리엄 본의 잠수정을 발판으로 삼아 과학자들은 획기적인 잠수함을 연구했다. 네덜란드 과학자 르넬리스 드레벨은 12개의 노를 설치해 자체 추진 동력으로 잠항하는 잠수정을 선보였다. 수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초의 선박으로 수심 4m 아래로 잠항해 약 10km 거리의 항해를 이뤄 당시 국왕 제임스 1세와 런던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더불어 밀폐된 수중 공간에서 공기 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밀 화학 액체를 사용했다. 이 비밀 화학 액체는 현재까지도 산소 성분의 화학 물질인 것으로 추측될 뿐, 정확한 정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중에서 공기 정화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현실로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발명가 데이비드 부시넬은 ‘터틀’이라고 불리는 최초



의 군용 잠수정을 선보였다. 이는 달걀 모양과 비슷한 1인용 잠수정으로, 사람이 직접 발과 손으로 조수석의 밸브 및 수직 프로펠러를 조작해 기동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터틀’은 두 손 두발로 적함의 밑바닥까지 다가가 선체에 달린 송곳을 뚫고 폭약을 설치하고자 하는 군사적 작전을 엿볼 수 있다.

해전과 함께 발전한 잠수함

데이비드 부시넬의 ‘터틀’을 이용한 작전은 기발했으나 미국 독립 전쟁 중 영국의 군함 이글 호가 급속으로 이뤄져 실패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연구자들은 사람이 직접 잠수정을 조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계 각국에서 증기 및 전기를 이용한 기계식 추진 잠수정을 내놓으며 경쟁을 시작했다.

1898년, 현대 잠수함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최초 근대적 잠수정 ‘홀랜드호’가 등장했다. 잠항 중에는 전기를, 부상 중에는 석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어뢰발사관을 장비해 다양한 나라에 채택됐다. 홀랜드호와 비교해 높은 안정성 및 신뢰성을 지닌 디젤 잠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1914년, 전쟁 중 독일의 잠수함 ‘U보트’는 영국군 선박을 포함해 군수물자를 조달하던 선박까지 모두 공격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 3척을 초기 1시간 만에 격침한 사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이후 세계대전을 모두 통틀어 가장 파괴력 있는 잠수함으로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다. U보트로 인한 피해가 급속히 늘자 이에 대처할 기술 ‘소나(소중 음파탐지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음향과 음파를 이용해 표적의 범위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신기술 소나에 비해 디젤 잠수함은 ▲무게 ▲연료비용 ▲산소 확보 시간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원자력을 이용한 현대의 잠수함

디젤 잠수함의 단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개발된 ‘원자력’은 현대 잠수함에서도 이용된다. 독일의 ‘맨해튼 프로젝트’는 핵무기 제작 프로젝트의 실패를 대비해 핵반응을 이용한 원자력을 개발했고, 본 프로젝트는 뜻밖의 성과로 원자력 잠수함을 발견하게 됐다. 이후 최초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 호’는 북극해의 빙판을 가로질러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원자력 잠수함의 추진 장치 요인 우라늄 확보는 정치 및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자들은 내부에 저장된 수소와 산소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를 개발했고, 이는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 적고 실효성이 높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AIP 잠수함을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일독립운동에 공헌하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의 이름을 붙인 총 9척의 손원일급 잠수함을 운용 중에 있다. 더불어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 등을 보유하고 있어 잠수함 독자 설계와 건조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경쟁 중이다. 비겁하게 숨어 공격하는 무기라고 비난을 받던 잠수함은 해전의 역사를 함께 거쳐 관광, 연구 등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글 - 정예슬 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발명상식사전



기자 사설



박미경 기자

2022년 2월 4일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동계올림픽이 개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한국은 9개의 메달을 따며 최종 14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필자 역시 선수들보다 더 긴장해 손에 땀을 쥐며 올림픽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사라진 올림픽 정신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서부터 도핑 파문까지 유독 많은 이슈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피겨스케이팅에서의 도핑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피겨 종목에서의 금지약물 복용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이다.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본인 의지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올림픽에서 반드시 우승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어른들의 잘못된 열망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번에 이슈가 된 피겨스케이팅의 도핑 적발은 코치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는 폭로가 있었다. 아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선수들에게 각종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폭력

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오직 승리만을 위한 조직적인 약물 복용이 계속된 승리로 인해 묻혔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도핑은 어떤 이유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순간적으로 근육과 근력을 높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약물을 복용한 선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약물로 인해 초인적인 경기를 보여주게 되면 다른 선수들은 당연히 그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경기하는 다른 선수들은 절망감과 우울증에 휩싸일 수 있고 자칫 슬럼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금지 약물 복용은 여러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방

지해야 한다.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 선수들의 숙명은 때로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올림픽이 시작된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물론 승리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올림픽을 그 자체로 즐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라는 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의 말처럼 순위에 집착하기보다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더 주목받기를 바란다.

글 - 박미경 기자 qkralrud0827@sungkyul.ac.kr

체험 에세이



노하은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겐 주어진 일이 많다. 한정된 시간 내에 자신이 맡은 업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다양한 업무가 쉴 틈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휴식이란 때론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워커홀릭’이라는 말도 일에 대한 압박감, 잘 해내고 싶다는 욕구, 성장에 대한 의지 등으로 생겨난 단어라고 한다.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브레이크 없는 차는 결국

쉬어 가면 보이는 것들

사고가 나듯, 휴식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나도 지난 학기에 학교 일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중국어 과외, 영어 학원, HSK 시험,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토익 공부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학점 챙기기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렸던 것 같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어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시기에 내게 그동안 누렸던 피로와 일상의 권태가 한번에 몰려오며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됐다. ‘지금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는 모순적인 나의 모습. 나는 삶의 생기를 되찾기 위해 진정한 휴식을 스스로 선사하기로 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힐링을 위해 내가 찾은 곳은 북촌 한옥 마을이었다. 한옥 스테이를 하며 핸드폰을

보며 쉬는 것이 아닌, 전통 한옥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다. 한옥에 도착해서 처음 떠오른 생각은 ‘막막하다’였다. 평소 부모님이 차려 주신 밥이나 배달 앱을 통해 밥을 먹었는데 힐링을 위해 찾은 한옥에 서까지 배달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고, 내면 가꾸기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초보용 요리책을 서점에서 구입해 쉬운 요리부터 서서히 해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 귀찮고 요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포기할까 싶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요리 실력도 많이 늘고 요리라는 일상 속의 작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밥을 먹은 후에는 시선을 전자기기가 아닌 자연과 책에 뒀다. 그동안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보지 못했던 소설책과 시집을 읽으며 내가 겪어 보지 못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쌓고, 나라면 해당 줄거리

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혹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되새겼다. 그리고 틈틈이 명상도 하며 바쁜 일상 속 쉼기지 못했던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시간도 가졌다.

5일 동안 온전하게 나를 살피며 재충전했던 시간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일정에 쫓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정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다음 계단을 안전하게 밟게 해주는 힘이 돼 줬다. 무기력한 상태 혹은 우울함이 계속된다면 당신의 몸이 쉬어 갈 타이밍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달리는 것만큼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며 당신도 일상 속 쉼이라는 달콤함을 맛보길 고대한다.

글 - 노하은 기자 dmlsu7226@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어쨌든 봄은 온다

필자는 다른 20학번 학우들과 다르게 비교적 학교생활을 많이 즐긴 편이다. 대 학생들을 즐기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한 시대 배경으로 인해 아등바등 학교에 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어쩌면 고생한 12년을 보상받지 못한 분노였을 수도 있고, 소속감을 통해 외로움을 소비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쪽이든 조교부터 시작해서 동아리 회장과 학보사 편집장 임명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가끔 ‘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했을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생각해 본다. 확실히 이 정도 시국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학교

생활을 한 것이긴 하지만 행복한 학교생활이냐고 묻는다면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진짜라고 믿었던 것들이 남들이 말했던 것처럼 허상에 불과했을 때 절망했다. 후회하지 않고자 앞만 보고 내달렸던 앞길에 역풍만이 가득했음을 깨달았을 때 오열했고, 잘해 보고자 했던 노력들이 욕심이 되어 모두를 지치게 할 때 괴로웠다. 외롭지 않고자 발버둥쳤지만 모래처럼 모든 게 손에서 떠났고, 머물러 주길 바랐던 지금이 이미 과거가 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분노했다. ‘나’를 조금씩 버려 가며 지킨 평화 끝에 고작 남은 것은 공허뿐임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겹겹이

만 남은 필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의 늪에 빠져들며 과거를 목격하고 나서야 행복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다. 행복하고 싶고, 행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괴로워야 하는가?

그러나 필자는 조금 더 살아보기로 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때에 맞춰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수확하는 한해 농사처럼 인생에도 때가 있다. 20대가 아니면 해보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다. 10대가 아니면 해보지 못할 것들을 해보지 않아서 20대는 해보고 싶은 것들을 되돌고 하고자 한다.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서 후회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다. 경험은 그다음을 살아갈 지

해를 주기 마련이다. 요령 없이 무작정 부딪힌 지난날이 한때는 상처였을지라도, 필자는 그만큼 더 단단해진 것이다. 다만 책임지지 못할 경험은 경험이 아니라 벗지 못할 누명으로 기억될 것이고, 치기 어린 실수는 과거에 발을 묶어 앞을 살아가면서도 앞을 볼 수 없게 만들 테다. 그러니 명심과 조심은 같이 해서 나쁠 것이 없겠지. 이제 필자는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 어쨌든 흐르는 시간이 아쉽지 않게 올해도 다시 달려 보고자 한다.

글 - 정우민 편집장 jelly1110@sungkyul.ac.kr

주간사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바라보며



임태균 교수
글로벌물류학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공한 이후 양측은 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특히 러시아군에 의한 공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을 낳았으며 무려 1000만 명 이상의 피란민도 발생했다.

여러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푸틴은 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우크라이나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양국의 전력차가 큰 만큼 당초 단기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완강한 항전과 러시아군의 예상 밖의 고

전으로 인해 전쟁은 점차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로 급기야 러시아 경제가 마비되고 디폴트 사태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자국인 러시아를 경제적 위기에 빠뜨린 푸틴의 죄과는 명백하다.

러시아 제국의 부활이라고 하는 환상에 젖어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그릇된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혹자는 그를 '21세기의 히틀러'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에 비해 결사항전의 뜻을 굽히지 않고 러시아에 대항하여 시종일관 당당히 맞서싸우고자 하

는 의지를 피력해 온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은 전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협받는 위기에 직면한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취해야 할 올바른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초에 치러진 대선 결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디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시하며 부강한 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올바른 리더십을 펼쳐보여 주길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교수칼럼

〈강자와 약자〉, 폴 트루니에의 시각



편요섭 교수
파이데이아학부 상담심리학

하지만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며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Paul Tournier)는 강자나 약자가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은 모두 '약자'라고 그의 저서 〈강자와 약자〉에서 전제하고 있다. 소위 우리가 보는 강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며, 실패와 실수를 무시하며, 성공을 과장하고 과시하는 자들이다. 또 우리가 보는 약자들은 자신의 강점을 간과하고 좌절하며, 성공과 성취조차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자로서 강자나 약자는 모두 약함과 두려움이 그들의 심리 저변에 깔려 있다. 강자는 그것을 감추고 잘 포장하는 데 성공한 자이고, 약자는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거나 드러난 자들이라는 것의 차이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강자에 속하는 사람들, 즉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별벌 떠는 사람들, 높은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영웅다운 기백을 떨친 사람들조차도 사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약자로서의 열등감과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트루니에는 피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동일한 뿌리의 다른 열매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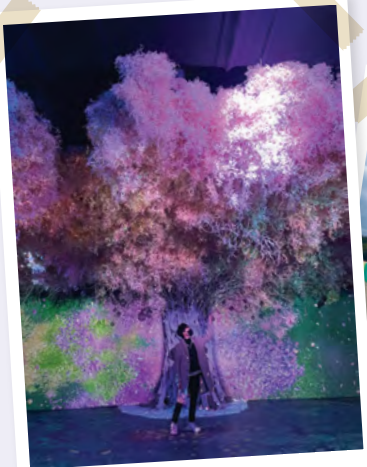
트루니에는 강자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더욱 강자인 척하며, 더욱 강해지려고 약자를 희생 제물로 삼고, 더욱 짓밟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들의 피해자로서 약자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트루니에의 시각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병리 현상과 이상심리들은 강자가 강한 모습을 힘겹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 욕구들을 짓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약자에게도 예외가 아닌데, 자신의 약하고 위축된 모습을 애써 감추려는 힘겨운 노력 또는 그것의 실패로 나타난 좌절과 열등감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트루니에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사례들을 통해 이런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강자든 약자든 자신의 죄와 약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깨닫고 그 사실을 진솔하게 고백할 때 정신건강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트루니에의 지론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바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는 강자의 허세와 약자의 수치로 인해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높은 산이 깎이고, 골짜기가 메꾸어져서 평지가 되듯, 강자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여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약자는 약자의 반응인 우울, 낙담, 슬픔, 자기 연민, 자책, 권태감, 자기 비난, 현실도피, 은폐, 고립, 침묵, 무기력 등에 집중하여 움츠러들지 않고 그 약함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트루니에의 외침이다.

독자 한 스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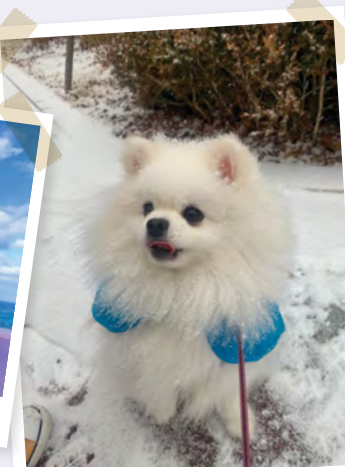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 독자들이 직접 장식하는 '독자 한 스푼', 이번에 학보사가 제시한 388호 주제는 '힐링'이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만큼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쭉 펴고 추운 겨울 동안 외로웠던 마음을 학우들의 힐링 사진으로 달래 보는 것은 어떨까?



안영서(도디18) 학우



정우민(정통20) 학우



김하은(컴공21) 학우



정성욱(컴공21) 학우

성결대학교 교육 방송국

HD FPS 25

V.O.S

수습 국원을 모집합니다!

V.O.S 에서 4111 신입을 모집합니다.

활동내용 방송국 수습 교육 진행 공모전 참여 수습 기간 후 교내 방송 활동	지원방법 하단에 나와있는 실무국장 or 부국장에게 문자	지원분야 제작 / 아나운서 / 기술	모집일정 ~ 2022.04.10 (면접 4/11)
---	---	-------------------------------	--

* 1학년 학우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SNS 카툰뉴스 제작도
할 수 있다고!

성결대학교 교육 방송국 VOS
1:03:57

문의 | 실무국장 010-5914-3010 / 부국장 010-5163-1956

거침없는 청년정신 도전하는 기자정신 잘나가는 학보사

특전

- 작문 실력 향상
- 매 회의 시 저녁 식사 제공
- 하계, 동계 연수회 지원
- 타 학과 학우들과 원활한 교류
- 다양한 간식 매일 구비
- 개인 사물함 및 프린터 무료 사용 가능
- 교내 축제 및 행사 시 연예인 밀착 취재 가능
- 넓은 공간에서 자유로운 휴식과 함께 휴대폰 충전 가능

모집요강

[모집 대상] 2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신입생 및 재학생
 [모집 기간] 3월 21일(월)~4월 29일(금)
 [지원 방법] 편집장에게 지원서 요청 및 메일로 제출
 [문의] 정우민 편집장 010.8936.8159

2022 동아리박람회

바른 동 박
길 잡 이

☆ 일 시 | 2022.03.31.Thu
 ☆ 시 간 | 10:00 ~ 17:30
 ☆ 참여 대상 | 성결대학교 재학생
 ☆ 행사 안내 | @sku_dongari38

보물찾기 | SPRING 포토존 | 오락게임
 버스킹 | 플라로이드 | 경품 추첨

제38대 모든 계열을 그대와 함께 사계[四季] 동아리연합회